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鄭允武
主幹 宋詠
編輯部長 李相奉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8131~9
本社直通@8577

每週火曜日發行

# 學校法人 東國學院 理事長에 尹喜重스님

## 31日 理事會서 만장일치로

## 正理事 9人 就任, 正常化 돼

### G建物·仕地등 移轉登記 完了

尹喜重 理事長

◇31日開催된 첫理事會光景.

지난 6월11일 G建物문제등으로 官選理事가 쉬임한이래 宗團측과 東國學院의 긴밀한 협조로 금년3월10일 G건물의 소유권移轉登記등의 내용을 담은 東國학원정상화 約定書를 교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수차의 회합을 거쳐 7월22일 同約定書의 수정에 합의, 佛敎團宗宗團은 유일한 宗立大學인 본교의 발전을 위해 G건물을 東國학원측에 지난 9월30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

東國學院正常化에 따라 東國학원은 정관개정에 의거 宗團측 偈信理事 5인과 각계인사 4인으로 구성된 9인의 正理事와 2인의 감사를 10월15일자로 선출한 이사회를 10월23일 선출된 이사와 감사로부터 각각 취임승락을 받아 동일자로 문교부에 취임인을 신청, 25일 문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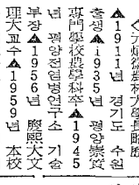
상호 교환된 約定書의 골자는 첫째 宗團측은 奬忠洞소재 G건물을 동국학원으로 소유권을 넘기되 東國학원측은 후부원청사전립비 기타로 7억원을 提供하되 5년간 분할상환하며 둘째, G건물이 멸도된 2주일내에 동국학원의 正理事 9인중 5인을 兩宗宗倍偈理事로하고 殘餘 4人을 구성키로 한다는 것등이었다.

그런데 總務院聽會(불교회관)은 수년전에 조계사경내에 착공되어 오는 11월末完工 예정이며 총공사비 2억원을 提供, 불교회관이 준공되면 조계종總務院 청사는 그곳으로 이전하게되어 G건물은 11월중으로 東國學院측에서전달을 사용하게 된다.

奬忠洞소재 G건물은 총건평 3천7백20여평, 대지 1만7백92평으로 지상6층 지하1층 규모로 본교 교육의 전용인데 그동안 학원정상화의 정원이되어왔다. 이번에 선출된 學校法人 東國學院의 理事명단은 다음과 같다.

▲理事長=尹喜重(月下·通度寺 祖室)
▲理事=崔鍾烈(月山·불국사 주지)
▲=徐京鐘(吞虛·대원암 주지·불교大學神院長)
▲=蘇藤鍋(九山·松廣寺 祖室)
▲=李瑄根(본교總長)
▲=鄭世鉉(淑明여자대학교 교수·동창회장)
▲=李尚兆(성소·法住寺)
▲=金東正(범효사·동창회부회장)
▲=裴廣述(昇珠·十寶寺 주지)
▲=徐京鐘(吞虛·대원암 주지·불교大學神院長)
▲=蘇藤鍋(九山·松廣寺 祖室)
▲=李瑄根(본교總長)
▲=鄭在哲(金樂金學園總敎·불교신도회)
▲=金弼洙(前大法官)
▲=鄭世鉉(淑明여자대학교 교수·동창회장)
▲=李尚兆(성소·法住寺)
▲=金東正(범효사·동창회부회장)

▲1915년 忠南 扶餘 出生▲法名·明禮, 法號·水선宏居이며 月下·深堀寺 得道▲1933년 鹿苑寺 公立보통학교卒▲1944년 梁山 通度寺에서 比丘戒 受持▲1951 大韓불교조계종宗正으로부터 禪學과 교리를 연구▲1955년 조계종중앙종무원 敎學部長▲1956년 조계종중앙종무원 敎學部長 취임·양산 통도사 主持취임▲1958년 조계종중앙감찰원장 취임▲1965년 통도사 普光禪院 祖室취임



◇元 學 長

## 農大學長에 元炳徽博士

### 大學人事委設置案 통과

### 東國學院理事會 敎員再任用審査委도

지난 31일 尹喜重理事長의 주재하에 열린 첫 이사회에서는 農林大學長에元炳徽박사를임명하고, 東國學院관리위원회를 개정, 교수 15人으로 심사위원회(委員長=總長) 를 설치하여敎員再任用에 관한 심사에착수하게 된다.

한편 이날 理事會에서는 문리대 酒映科 柳世榮조교를 부교수로 승진시키는 안을 통과시켰다.

교원재임용심사위원회는 總長이 부교수級 이상의 교수 15人으로 심사위원회(委員長=總長) 를 설치하여敎員再任用에 관한 심사에착수하게 된다.

한편 이날 理事會에서는 문리대 酒映科 柳世榮조교를 부교수로 승진시키는 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檀君學會농업대학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후임에 농림대 농업과 元炳徽교수를 정관시행세칙을 개정, 교수회의 추천에 의거 농림대학장으로 임명했다. 元炳徽교수는 1959년부터 농업과 교수로 재직하고있다.

◇元炳徽博士

### 農水産장관상 獲得

#### 農硏部 4H硏究발표회서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수유리 재건국민운동 교육원에서 열린 전국大學 4H연구회주최 제12회 크로바 학연의 연구발표회에서 本校 農業村硏究部(部長=李鍾語·농학 3)가 단체부문에서 최우수 발표를 하여 영예의 농수산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발표회에서 농수산부장관상을 받은 최우수 발표상의 論題는 農硏 李瑄根총장의 「韓國農村의 재정으로 농림대학장이 임명했다. 元炳徽교수는 1959년부터 현재 農業硏究 및 聖地巡禮가 주관하는 「農業村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KOTRA(한국무역진흥공사)의 상품정보부장 李宗宏씨가 75년도 수출현황과 수출부진의 이유, 수출마켓팅 전략등에 대해 강연을 했다.

### 敎練보충敎育

#### 申請書5日限제출

교무과에서는 오는8, 9양일간에 결쳐 실시되는 敎練補充敎育및추가시험 대상자의 교련보충교육신청서를 5일까지 받고있다.

2학기 수강신청시 보충교육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도 이기간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충교육참석이 가능하다.

이번 보충교육은 양일간에 걸쳐 총14시간의 교육완료후에 추가시험을 치루게 되면 학년, 학기에관계없이 교련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대상학생은 학년별로 보면 1학년 92명, 2학년 1백11명, 3학년 1백52명, 4학년 47명으로 총 4백22명에 이르고있다.

### 大學院生安保特講

#### 水原龍珠寺서實施

대학원 碩士課程 재학생 50여명은 지난 24일 수원龍珠寺에서 安保特講과 야외실습을 가졌다.

李瑄根총장과 張庚鶴대학원장, 민병천기획실장, 鄭址鎬학사등 교수진이 참석한 이날 特講에서 李총장은 大學院生들에게 「호국불교에대하여」, 閔室長은 「韓國安保」와 「UN」, 그리고 張庚鶴원장은 「세계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각각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이 끝난후 대학원생들은 수원에있는 유실수연구소에 들려 新種나무재배와 관리상황등을 시찰하였다.

### 1등에 梁基炯君

#### 敎養學部讀書콩쿠르

연초에 1등1편, 2등1편, 장려상2편이 선정되었던 입상자는 다음과같다.

▲1등=梁基炯(임학) 「牧民心書」▲2등=徐炳喜(불교) 「花郎道와 三國統一」▲장려상=徐鈞浩(법학) 「花郎道와三國統一」. 또한 오는22일(토) 교양학부도서실에서는 1975년 총장기쟁탈독서콩쿠르대회가 열린다.

원고마감은 오는18일오후 5시까지며 원고매수는 20매내외.

참가자격은 월별 입상자 도원월이며 지정도서는 75년도 지정도서중 택일.

시상식은 오는24일 오전9시 총장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 佛敎合唱團

#### 7日合唱公演예정

#### 新入團員도選拔

佛敎合唱團(會長=박요한 행정2)에서는 오는7일에 개최될 제8회 피내합창공연을 위하여 지난 10월31일 합창단원의 결석 4명의 여학생을 선발했다.

이들은 소정의 음성테스트에합격, 피내합창공연에 참가하게 된다.

또한 團員은 지난 10월 11일 제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개선했다.

新임원에는 회장에 박요한(행정2) 군, 부회장에 이남희(농생2) 양, 총무에는 최의식(법학1) 군이 각각 피선되었다.

지난 18일에는 숭충력지도교수의 인솔로 남한산성 장경사 낙성식에 초청받아 반야심경, 삼귀의 등을 합창했다.

이번에 선발된 團員의 명단은 다음과같다.

▲김태순(가교1) ▲박일환(경제1) ▲강성미(수교1) ▲심원섭(영문1)

### 敎養人을 위한 思索의 등불

月刊 讀書生活 創刊號 發刊

英理의 등불

全國有名書店一齊發賣中!

株式會社 三省出版社 發行

5百萬 敎養人을 위한 새로운 스타일의 本格敎養誌 드디어 創刊!!

이 잡지는
成年 三省出版社의 四半世紀를 격려하고 아껴주신 전국의 독서가족 여러분의 厚意에 보답하고저 펴내는 월간 종합 교양지입니다.

이 잡지는
오늘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生活人을 위해, 내일을 設計하는 大學生들의 풍요한 꿈을 위해, 그리고 책을 사랑하는 萬人을 위해 엮어집니다.

이 잡지는
교양지로서는 국내 최초로 大型判 컬러·옵셋인쇄를 단행하여 〈보고 읽는〉 視聽覺 時代의 잡지로 꾸몄읍니다.

이 잡지는
동서고금의 명저·역저 및 기본교양이 될 유익한 읽을거리와 良書選別에 필요한 풍부한 상식을 제공하기 위해 實益為主의 종합문고적 성격을 편집뼈대로 했읍니다.

創刊號에는
해방 30년의 「韓國史硏究」를 총결산하는 특집과 「한국건축의 美」, 「세계文學旅行」, 「한국名人評傳」이 컬러특별기획으로 다루어졌으며 국문학의 大衆化를 위한 金烈圭교수의 야심적 집필을 비롯해 「現代美術의 巨匠」, 「出版夜話 一〇〇年」, 프랑스 최고 문제작가 쟈끄 세섹스의 최신장편 「뜨거운 王國」등이 수록되었읍니다. 그리고

創刊紀念으로 독서가족 여러분을 위한 특별謝恩別冊附錄을 꾸몄읍니다.

別冊附錄 現代世界短篇文學選

이 별책은
헉슬리에서 욘손에 이르기까지 현대세계문학의 문제작가 20명의 대표단편을 총망라, 오늘의 단편 文学 世界를 한눈에 살펴보게 했읍니다.

本 誌 (4·6倍判 原色·單色畫報 100面 총252面)
別冊附錄 (4·6判 總366面) 합해서 값500원

## 高麗大藏經 影印本完刊

### 總48卷, 豫算 1억2천만원 確保

### 李總長 "護國精神의 結晶, 民族的偉業"

李瑄根 總長

佛陀世尊의 敎訓을 담은 世界 全人類의 聖典인 國寶32號 高麗大藏經(海印寺소장) 影印本이 本校東國譯經院에서 明年4월낳까지 完刊하게 됐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달 30일 李瑄根總長과 國內각일간지 記者와의 인터뷰에서 李總長이 그동안 추진해온 高麗大藏經影印完刊事業計劃을 발표함으로써 처음으로 밝혀졌다.

李總長이 그동안 추진해온 高麗大藏經影印完刊事業計劃을 발표함으로써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번 高麗大藏經影印事業은 57년 白性郁총장시부터 시작하여 72년까지 25권을 刊行했으나 그간 자금사정으로 부진했던것을 李총장의 英斷으로 금년부터 다시 이사업을 추진, 施設및 예산 金鎭敎務處長, 李賓永敎授등 관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개교70주년을 기념하여 完了된다. 또한 명년에는 우리나라에서 世界圖書館大會를 개최하게 되였으므로 外國學者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계기도될것이라고 말했다.

高麗大藏經影印事業은 (26권·48권까지) 1억2천만원을 학보, 76년4월말까지 完刊을 기을이게될것이다. 그동안 학교당국은 완간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李총장은 『이 사업을 합리적으로 적극추진하기 위해 금년초 敎授 한 학교사업으로明年5월 8일 개교70주년을 기념하여 完了된다. 또한 學部처·室에 高麗大藏經撮影室을 설치했으며 또한李총장을 위원장으로하는 刊行委員會를 구성, 위원회를 소집해왔다.

고려대장경影印本 간행위원회는 처음 44권을 완간계획으로 세웠던 57년당시의 계획을 수정, 8만1천1백37개에 달하는 經板을 이번에 재정토한 끝에 4권을 추가하여 48권을 刊行키로한 것이다. 48권을 刊 특히 제48권은 解題索引으로 經板주조의 역사, 현행 경판의 구성및 수록된 經의 著·譯者와 經의 異名, 그리고 총목록등을포함하게 된다.

간행사업진척상황을 보면 총48권중 33권까지 간행완료되었고 현재 34권이 완료되었고 현재 간행작업이진행중이다.

海印寺에 있는 高麗大藏經板을 영인하는절차는 梁山通度寺에 소장되어있는 白色紙經板을 촬영실에서 필름화하여 영인하게 된다. 특히 8만1천1백37매에 달하는 經 모두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고유번호가 없어진것 72년까지 나온25권 등 포함한 작업을 부여하는 것이 진행하고 있다.

또 既刊行된 25권을 재검토, 빠진데 덧붙여 보충하고 다시 주조하여 25권을 만들때 李朝때나 대장경을 만들때 없어진것을 알고 다시 주조한 경판중 없어졌던 원판을 찾아넣고, 李朝때 것등을 교정, 그리고 계일, 계일, 하습지도등을 진행하고 있다.

◇刊行委員名單
▲委員長=李瑄根總長▲副委員長=金鎭敎務處長▲委員=趙昌植總務處長, 李賓永교수(敎養學部) 李龍範교수(文理大學長) 安啓賢교수(文理大學長) 洪植교수(佛大學長) 朴敬淳(朴熙氷(도서관사서과장)(경영경영대학장) 甲貞均(경영경영대학부장)

### 不遇兒童돕기 運動

#### 젊은 새이웃, 土曜學校도

젊은새이웃(회장=윤영철·공경2)에서는토 요학교의 대상 아동인 화곡동 소재의 천애보육원 꼬아동이마 난 1학기부터 계속 매주 토요일마다 城南 화곡동천 애보육원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야동들에게 웃음을 주고 아동들에게 지도하고 있다.

젊은 새이웃은 지난 1학기부터 계속 매주 토요일마다 城南 화곡동천 애보육원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야동들에게 웃음을 주고 아동들에게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계일, 계일, 하습지도등을 실시하고 있다. 천애보육원에서는 경비부족으로 아동들에게 웃음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同部에서 金東國人을 대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것이다.

### 學徒護國團修練會

#### 소요산서 90餘名參加

학도호국단음영위원주최 1일 수련대회가 지난2일 동두천 소요산에서열렸다. 三陵長, 기획실장, 각부서장과 호국단장단 이상(각부장포함) 90여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는 음영위원간의 유대를 깊게하고 문교부·총 학도호국단가를 보급시키기위해 실시됐다.

한편 이날 수련대회에서 된 經의 著·譯者와 經의 異名, 그리고 총목록등을포함하게 된다.

### 農水産장관상 獲得

#### 農硏部 4H硏究발표회서

이번 연구발표회에서 농수산부장관상을 받은 최우수 발표상의 論題는 農硏 李瑄根총장의 「韓國農村의 재정으로 농림대학장이 임명했다. 元炳徽교수는 1959년부터 현재 農業硏究 및 聖地巡禮가 주관하는 「農業村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KOTRA(한국무역진흥공사)의 상품정보부장 李宗宏씨가 75년도 수출현황과 수출부진의 이유, 수출마켓팅 전략등에 대해 강연을 했다.

### 産業시찰등실시

#### 行政大學院學生會

本校 行政大學院 學生會(회장=趙貞華)가 주관하는 産業硏究및 聖地巡禮가 오는 8, 9양일간에 걸쳐 陵일원에서있을 예정이다.

甲宗淳行政大學院長의인솔로 行政大學院生40여명이참가하게 될이번 産業視察및 聖地巡禮는 졸업과 동시에 貿務에 임하게될 이들에게 뜻있은 행사가 될것같다.

### 國長盃 이희문君

#### 學生테니스大會 閉幕

本校 정구부(부장=강성용(화공·4) 이수영(금교·2) 무파장 출포부장배)=이성모·체교2)에서 주최했던 제1회 학도호국단장배 정구대회가 지난1일 결승전을 끝으로 폐막됐다.

단식9개팀 복식 12개팀, 혼합복식5개팀등 전한 이 대회는 지난10월 20일~31일까지 에선미그를 모두 마치고 결승전을 석과 男子 단식에서 이희문(무역·2)군이 단장배를 차지했고 男子복식에선 서용진(정의·4) 조관뒤 코트에서 가진 결과 男子 단식에서 이희문(무역·2)군이 단장배를 차지했고 男子복식에선 서용진(정의·4) 조관뒤 코트에서 가진 결과 男女 혼합복식에서는 강성모(체교·3) 김진옥(가교·3) 조가 우승, 단장배를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에 있어 임진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男子단식·우승(호국단장배)=이희문(무역·2) 준우승(교수테니스회배) 서용진(정의·4) 미기상(법정대학장배) 이성룡(화공·4)

▲男子복식 우승(호국단장배)=서용진(정의·4) 홍병선(건축·3) 조, 준우승(교무처장배)=김철문(사학·2) 황성하(농경·2) 조, 미기상(경상대학장배)=김철문(무역·3) 이인덕(경영3) 조▲男女혼합복식 우승(호국단장배)=강성모(체교·3) 김진옥(가교·3) 조, 준우승(교양학부장배)=이희문(무역·2) 이강연(화학·2) 조, 미기상(교교양과장배)=김진옥(가교·3) 조, 준우승(교무처

社說

# 大學生과 修學旅行

지난 10월에는 우리大學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치렀다。캠퍼스 안에서 全校 체육대회를 하는한편 밖으로 修學여행을 가기도 했다。특수한 몇개 학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학과에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우리나라에서는 修學旅行이 대학 교육과 여전히 밀접히 관계를 맺고있다。해방전만하더라도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모르되 대학에서 가지 수학여행을 간다는 일은 거의 없었다。현재도 일본, 미국, 독일같은 나라에서도 대학생이 단체로서 수학여행을 하는 일은 거의없다。

수학여행은 캠퍼스를 떠나 사회로 나가는 것이므로 일반 사회인의 주목을 받게되는 점에서, 교내에서 시행되는 행사와 다르다。

오늘 각급학교의 수학여행에 대하여 사회의 批判의 소리가 자못 높아지고 있음은 주목할 일이다。

원간 건전의 보도에 의하면 수학여행을가서 발생케 놀음을 한다거나, 수학여행을 다녀온후로는 습관유가 오히려 손상되는 현상이 현저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이것은 수학여행의 「公害」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病理현상은 왜 발생하는가。우리는 그 원인을 究明하여 수학여행을 올바른 궤도에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수학여행은 일반사회인의 觀光여행과는 다른 것이어야할 것인데, 아직 그것을 이해하거나 혼동하고 있음은 유감이다。일반 사회인의 관광여행은 그저 일상생활의 피로를 풀다거나 신체의 보건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충분할지도 몰라。이에 반하여 대학생의 修學여행은 문자그대로 그 목적이 배움과 道德에서 잘시 벗어 나서 行樂을 즐긴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책 할수는 없을런지 모른다。그러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캠퍼스안에 있거나 그 밖에 나가거나, 언제나 학생의 신분을 지니고 있는만큼 항상 修學하는 목적을 벗어 나서는 아니될 것이다。그러므로 대학생을 이 수학여행은 여러 가지 脫線行爲를 범하여 사회의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대학생의 본분을 잊은 탓이다。

학교 측 방면에 「여행술의 실수는 부족하다」는 뜻의 말이 있다。이것은 그릇된 여행관이다。오히려 나 보다 젊서 있게 행동하여 사회도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여행은 人間도 만든다」라는 말이 있다。여행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여행에서 정신과 신체의 단련을 꾀할이 바람직하다。그러기위하여 대학생의 수학여행에 있어서는 일반 학생의 수학여행과 다르게 하는 行樂的인 여행코스는 피하고 신앙지성 교양답사, 지하답사 등의 양식이 나타나다 각각 달리 강조되어 왔다。

古代 Egypt「나일」강나라는 지방은 해마다 洪水로 인하여 나일江 이 범람하기 때문에 建築物들은 높은 築臺위에 세우게 되었는데 이때 Egypt의 王이 사랑하는 王妃를 위해서 만들었다고하는 空中庭園은 世界七大 不可思議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다。

高麗時代에 宮中에서는 많은 內帑金을 들여 가면서 宋나라에서 珍貴한 花卉를 輸入하였고 各種 花卉와 공작새, 앵무새, 원앙새등의 鳥類가 宋나라로 부터 獻上된 것으로 보아 宮中과 貴族들의 庭園은 매우 發達됐었음리라고 본다。

Rome에서는 Patio garden模式이 發達됐는데 正門을 들어서면 Atrium이라고 부르는 넓은 空地가 있어서 花木類나 草花를 植栽하였고 噴水 및 분수대유로 裝飾되었고 더욱 큰 住宅은 第三의 空地가 展開되는데 Xystus라고 불리우는것으로서 果樹園 蔬菜園등을 갖추었었다。

個人庭園은 이러하고 都市에는 곳곳에 Open Space로서 forum이라고 불리우는 廣場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集會나 市場의 機能으로서 이용되어 使用되었다고 한다。

文藝復興期에 들어와서 Europe 各國에서는 造景發達의 黃金期를 이루어 프랑스, 영국, 독일등의 나라는 각기 獨特式을 갖게되었다。즉 이탈리아는 露壇建築式庭園(Italian Formal, Terrace-Dominant Architectural Style)으로 발달시킨 平面幾何學式 庭園(French Formal, plane geometrical style)으로, 독일은 風景式庭園(German Landscape style in Naturalism)으로, 영국은 窯賞式風景式庭園(English landscape style, Landscape Style)으로 발전시켰다。즉 이들 나라는 自然景觀을 살려서 半月城을 築城했으리라고 본다。現存하는것으로 魔州의 凱爾維, 鮑尼亞은 우리나라 造景資料중 가장 아름답고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園藝학과가 서울市立農大에서 최초로 設立되였고 이원예학과에서 花卉園藝學, 蔬菜園藝學, 果樹園藝學 造園學의 4과목이 마루어져 왔는데 사실造園學과 화훼원예학은 우리나라대학교육에서는 1957년에 최초로 시작되였다。그리고 造園학에는 일반조림학, 조원수학, 조원제도등의 과목을 두어 장의해온 것으로 안다。그후 타대학 일부에서도 造園學 강좌를 두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造景學을 일본에서는 造園學이라고 부르고 있다。간단히 말해서 동산(築山)을 만드는는 개념이다。즉 돌(庭)이나 園의개념은 上古時代부터 考察해볼 필요가있다。또 造景學은 미국에서는 Landscape Art(風景예술) Landscape Engineering(風景토목) Landscape design(風景計劃) Landscape Architecture(風景建築, 築園) 등의 용어로쓰이고 그리고 영국에서는 garden design(庭園意匠) garden planning(庭園設計 庭園計劃) garden craft(庭園기술)등의 용어로 쓰여지고있다。

造景學은 원래 예술인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인간의 생활공간과 國土의 광대한 자연風景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보존하는 것이다。즉 造園에서 잘시 벗어 나서 行樂을 즐긴다 하더라도 지나치게책 할수는 없을런지 모른다。그러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캠퍼스안에 있거나 그 밖에 나가거나, 언제나학생의 신분을 지니고 있는만큼 항상 修學하는 목적을 벗어 나서는 아니될 것이다。그러므로 대학생을 이 수학여행은 여러 가지 脫線行爲를 범하여 사회의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대학생의 본분을 잊은 탓이다。

학교 측 방면에 「여행술의 실수는 부족하다」는 뜻의 말이 있다。이것은 그릇된 여행관이다。오히려 나 보다 젊서 있게 행동하여 사회도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여행은 人間도 만든다」라는 말이있다。대학생의 수학여행은 캠퍼스를 벗어나 사회로 나가는 것이므로 일반 사회인의 주목을 받게되는 점에서, 교내에서 시행되는 행사와 다르다。

오늘 각급학교의 수학여행에 대하여 사회의 批判의 소리가 자못 높아지고 있음은 주목할 일이다。

원간 건전의 보도에 의하면 수학여행을가서 발생케 놀음을 한다거나, 수학여행을 다녀온후로는 습관유가 오히려 손상되는 현상이 현저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이것은 수학여행의 「公害」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病理현상은 왜 발생하는가。우리는 그 원인을 究明하여 수학여행을 올바른 궤도에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수학여행은 일반사회인의 觀光여행과는 다른 것이어야할 것인데, 아직 그것을 이해하거나 혼동하고 있음은 유감이다。일반 사회인의 관광여행은 그저 일상생활의 피로를 풀다거나 신체의 보건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충분할지도 몰라。이에 반하여 대학생의 修學여행은 문자그대로 그 목적이 배움과 道德에서 잘시 벗어 나서 行樂을 즐긴다 하더라도 지나치게책 할수는 없을런지 모른다。그러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캠퍼스안에 있거나 그 밖에 나가거나, 언제나학생의 신분을 지니고 있는만큼 항상 修學하는 목적을 벗어 나서는 아니될 것이다。그러므로 대학생을 이 수학여행은 여러 가지 脫線行爲를 범하여 사회의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대학생의 본분을 잊은 탓이다。

우리나라에서는 修學旅行이 대학 교육과 여전히 밀접히 관계를 맺고있다。해방전만하더라도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모르되 대학에서 가지 수학여행을 간다는 일은 거의 없었다。현재도 일본, 미국, 독일같은 나라에서도 대학생이 단체로서 수학여행을 하는 일은 거의없다。

수학여행은 캠퍼스를 떠

# 科學的思考와 直觀

## 獨創的直觀과 着想 중요

### 論理·普遍性위에 個性있는 研究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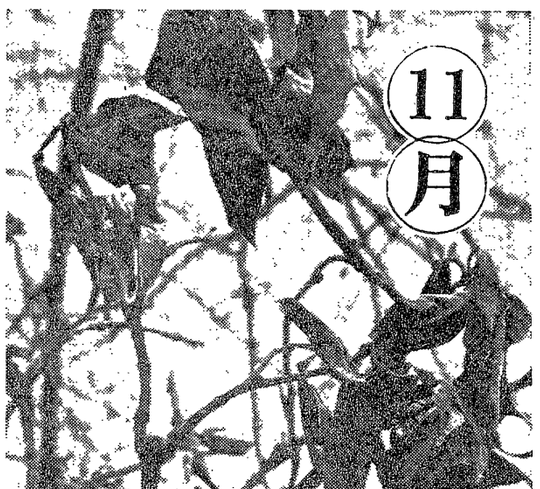
### 開拓者的 研究態度 긴요

金宜洛 〈博士·카톨릭醫大 助敎授〉

科學의 諸分野에 있어서 研究의 組織化와 장비의 計劃등 研究의 勢의 整備가 科學研究의 發展에 있어 필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科學研究가 비약적으로 發展하여 獨創的인 研究가 많이 생길 것을 기대하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研究를 進行하는 主體는 科學者 自身이다。그러므로 必要한가 科學者에 어떤 素質이 있는지 그중에서 어려가지로 서는 다음과 같은의 지적이 있다。그 가장 큰 것은 비중을 하나는 敏理的 解析 能力이고, 두번째는 實驗에 依한 現象을 系統化하여 締納하는 能力 그리고 세째는 哲學者 「루그레이우스」에 의하면 「직관적 洞察力」이 있는 것을 지금까지 우위의 科學者가 수행해서 있는 것을 보면 이 세째의 「루그레이우스」의 素質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그것들중에 입자가만 있는 것은 직관력 또는 着想力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그런데 이 直觀力 또는 着想力에 관한 問題는 아직 本質的인 未開拓 槪念을 많이 남겨 놓고 있다。

科學者는 抽象的인 槪念을 論理的으로 實驗과 一致되는 限 그 歸結이 보순이 없고 槪念 構成을 抽象的인 槪念과 결합되지 않는 限 直觀的인 日常世界의 直觀的인 받아들이지 않는다。「부가지에 이 點에 對하여 우리들의 그 例를 한 두 가지 들면 直觀力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自信의 그것 개척자적인 하게 연구태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런데 이렇게 한 着想을 일깨워 獨創的인 科學者의 만드는 點에 있어서는 體系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지만 科學의 論理性과 普遍性을 重視한 나머지 個性이나 直觀의 研究者의 奮發性을 認識하지 못한다。

그런데 나는 科學的 思考에 있어서 直觀은 중요한 것이다。에를 들면 노벨의 化學者인 「훔볼트」의 化學의 獨創的인 「體系」는 그의 훌륭한 直觀力과 自信의 그것을 뒷받침하게 되었고 結合論의 體系化한 槪念을 많이 남겨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創想의 이 「훔볼트」의 「體系」는 그의 獨特




## 晩秋!

우리는 함성으로 가을하늘을 떠쳤고
우리가 풍선을 날린 하늘은
우리마음처럼 높아만 갔다.
우리 추위를, 교정을 맴돌며
슬픈사람에겐 울음을,
기쁜 사람에겐 웃음을 일러주고
이제 남쪽으로 사라지려는가을의 뒤를
찬바람이 자르고 있다.
한번 소리내어 쌓이는 낙엽,
수수께끼져 쌓이는 낙엽.
풀벌레소리 키우던 가을이
낙엽이 떨어지는 순간에서
불씨를 일어 제 몸에 불을 지르고
향기를 얻기로 뿌린다.
어제다
그옥한 가을향기를 들마시는 건
북쪽에서 내려온 첫눈의 기다림.
불타는 가을.
육화향기 남쪽으로 뻗어오는 11월!

# 修學旅行 再檢討

## 專攻살리는 現場敎育

黃 鍾 九

修學旅行—文字 그대로 學業을 總綜理하기 위해 見聞을 넓히고, 산 知識을 얻기로 마음먹고 떠나는 여행이다. 언제나 敎室안에서 冊과 겨루며, 黑板만을 대하면 좁은세계를 떠나 두 팔을 한껏 벌리고 自然과 呼吸하며 浩幹의 경지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이 修學旅行의 참다운 趣旨일 것이다.

修學旅行의 本來 意味는 「견문을 위한 여행」일 것이다. 이는 분명히 一般觀光旅行과는 本質的으로 다른 무엇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大學의 修學旅行은 더욱 그러할것이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大學에 修學旅行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大學生活을 위해 여행이라는 것이생겼고 구태여 修學旅行이란 이름이 붙여진 바에야 當然히 가고 오는데 맺고 끊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요사이 大學生의 修學旅行에 論難이 일고 있다. 이럴때의 論難이란 으레 그렇듯이 批判의 소리이다. 왜 大學生들의 修學旅行이 批判을받는가? 나는 그것의 결정적인 원인이 大學의 修學旅行이 一般人의 觀光旅行과 별로 다를것이 없게 實施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 外에는 大學의 修學旅行이 批判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다. 大學의 修學旅行이라는게 觀光旅行과 다를게 없다면 批判받아 마땅하다고본다. 大學의 修學旅行이 단순한 觀光여행과 다르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선 행선지가 다르다면 달라야 할것이다. 觀光客들이 설악산 내장산 단풍을 찾는다면 우리는春香傳의 故鄕 남원을, 아리랑의 고향 旌善을 찾아야 할것이다. 그들 一般觀光客들이 고속버스로 헤운대를 찾는다면 우리는 수수하게 3등기차를 타고, 海印寺를 거쳐 을 아야 할것이다. 요컨대學問을 탐구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행선지를 고른다면 단순한 사치성觀光과는 달라질것이다.

그렇다면 가지고 가는 짐의 內容物도 당연히 달라야 할것이다. 觀光客들은 이브닝포나 화투를 가지고 가는데 반하여 우리는 많은 資料, 예컨대現地에서 필요한 많은 論文, 독적에 부응하는 장외노트, 원고지, 스케치도구등이 될것이다. 이때라라도 觀光客들과 섞인다면 배경앞에서 추지만 우리의 커리는 塔身 人物에 촛점을 맞춰 學問硏究에 필요한 塔身이나, 佛像또는 유적등을 담아야 할것이다. 녹음기따위가 觀光客들에겐 남잡한 짐을 추기한道具로 사용되지만 우리는 現場에 民謠라든가 民談그의 귀중한 音資料를 모으기 위해 자료로 채택되어 있었던점 미루어 있다. 이렇게 되면 자시나마 自然속에 묻혀 보라는 期待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外面당하고 만다. 또 한 이들이 들고 가는 器具들은 觀光客들과 같은 것이 아니나 낭비를 위한 오락여행일 뿐이고, 사치스런 賞秋人波일 뿐이다. 그런 단순한 賞秋人波일뿐이면 社會의 批判을 면치못할것이고 문제되는 많을 賞秋人波을 나무랄 아무것도 되지못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한다면 大學生의 修學旅行團까지도 아무 쓸모없는 유원지로 몰려 그곳의 호화판 숙박시설을만 재활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요즘의 修學여행은 초중고는 막론하고 뿐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향락적인 오락놀음으로 달라졌한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커다란 사회문제로된 修學旅行을 당연히 大學의 修學여행이 그 模範을 보여 솔선해 바로 잡아야 참이 마땅하다.

<文理大·英文科> 文 善 根

## 觀光旅行과는 달라야

나는 운동경기중 야구를 가장 좋아한다. 장외시간까지 빠지면서 구경하는 야구광임을 내친 구들이라면 누구나 인정해준다. 특히 야간경기때 함초롬한 잔디와 아늑한 분위기는 나를 북잡다단하고 공해로 찌든 서울의 울적함도 잊게 만든다. 그리 흔하지 않은 흥취다. 「펜스」를 넘어가는 공을 볼때는 뉴욕보다 나은것이 없다는 점도의 편치를 줄아하는 인간들의 묘한 심리의 한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修學旅行이 아니고 낭비를 위한 오락여행일 뿐이고, 사치스런 賞秋人波일 뿐이다. 그런 단순한 賞秋人波일뿐이면 社會의 批判을 면치못할것이고 문제되는 많을 賞秋人波을 나무랄 아무것도 되지못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한다면 大學生의 修學旅行團까지도 아무 쓸모없는 유원지로 몰려 그곳의 호화판 숙박시설을만 재활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요즘의 修學여행은 초중고는 막론하고 뿐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향락적인 오락놀음으로 달라졌한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커다란 사회문제로된 修學旅行을 당연히 大學의 修學여행이 그 模範을 보여 솔선해 바로 잡아야 참이 마땅하다.

<文理大·英文科>

## 曉峰禪師語錄

(曉峰門徒會編·晋溪山三日庵244P)

오늘날 우리들은 온갖 모순과 혼돈속에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五濁惡世의 표본이 아닌가 싶도록 삭막한 세상이다. 이런 혼돈의 근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문제이다. 종교를 널어선 無爲의 世界로 바꿔지 않고서는 인간사회에 근본적인 자유와 평화는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智慧와 德을 쌓아 안심立命處를 역설하던 古人들의 말씀이 아쉽다.

이 語錄을 발간하는 의미도 오로지 여기에 있다 라고 이 책의 後記는 말하고 있다.

## 藝術의 創造

(金潤洙編·太極出版社刊)

「敎養의 文明에서 技術의 文明으로」에의 轉換, 復興藝術의 登場과 藝術의 世俗化, 繪畫, 音樂, 演劇 映畫등 藝術 全分野에서 錄音된 새로운 藝術의 오늘길에 들어선 現代, 그래서 20世紀는 인류 역사에서 일찌기 없었던대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시대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같은 심각한 역사적 현실과 인간적 상황이 어지럽게 펼쳐진이때, 이번에 太極出版社에서 現代人의 思想시리즈 8卷으로 펴낸 「藝術과 創造」는 20世紀를 사는 現代人들에게 있어 必讀의 書라고 생각된다.

<中央圖書館提供>

新着圖書

# 野球와 人生

隨筆 李孝慶

우리네 人間 역시 신이 아닌 이상 결점을 반드시 있는 법이다. 한번의 잘못으로 전 人生을 그르치는 바보는 되지말아야 한다. 다만 그와같은 특잘을 실수가 되풀이 되지않게 조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성실과 노력, 인내로써 살아온 生이라면 평복하게 늙을 것이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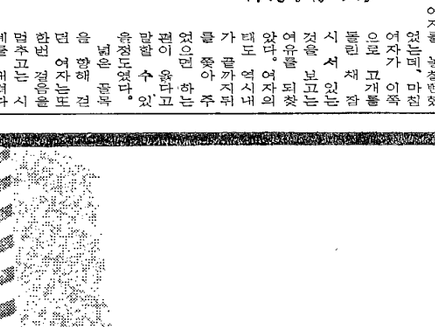
그리고 그렇게 산 너의 생에 대해 신만이, 또한 우인들이 축복해줄 것이다. 우인들이 축복해줄 만한 생애를 요구하지 않고 다만 그것을 하트 앤 런, 희생타와 요령 장공제도 등에 필요로 하는 한번도 현실상사에 떠나보지 못하는 편견의 평리이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역시 이것 외에 별로 달리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주어도 말하고 싶다. 하나는 인생의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 다시 말하여 응용성있는 것을 그것이 되어야 응용성있는 것을 그것이 되어야 한다고 현실과 타협하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와 같은 실에 참여하고 관계하는 한평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끝으로 우리모두 매피 흉련을 날리는 장자는 풍쾌한 웃음이 있는 저력있는 자자는 반드시 되어야만 할 것이다.

<中央圖書館提供>



## 外出

◇단편소설

글·柳在石 그림·피윤

<2>

그리고 그는 얘기를 했다.

『토요일 꿍양을 뭔계일 받이지오. 시내엘 나가면 은파라고 하는 음악감상실이 있는데, 또 기절 가셨을거예요.』

『알겠소. 고맙습니다.』

『그리 가 보시구요?』

나는 대답 대신에 고개를 주억거려 보이고는 물을 들였다. 그러나 나는분명 무언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는 경음을 멈추었다.

『제가 깊을이라는 건 어떻게 아셨읍니까?』

『아, 그거요? 최경창님은 자주 깊음씩 오셔요. 저도 여기에 나와 있지만 보관부 요원입니다. 최경창고관 가끔 술자리에 오셔십니는 편이죠.』

어두운 면회실 밖을 나섰을 때 하늘은 아까보다 더 파랗게 물들어져 있었다. 눈이 아플거렸다. 스물 네 시간 중에 이제 겨우 한 시간이 지났다.

사렬부 앞에서 다시 목척교를 나온 때는 이미 한낮이였다. 토요일 오후의 도심지는 상당히 붐비고 있었다. 이때 나는 놀랬지는 행인들의 어깨를 이리저리 날렸다. 걷고 있는 한 여자와 흡사했다. 『아, 그러나 자세히 보니 여자는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희 부라우 치마 위에 분홍 쉐스 안에서 길을 물어 보던 여자와 흡사했다.